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3차)

개최일시	2013.01.21(월) 18:00~22:10	회의장소	진관 휴게실
참 석 자 (13인)	오종근(교무처장), 신경식(기획처장), 조경원(총무처장), 신하윤(학생처장), 이명휘(재무처장), 서미옥(예산팀장), 봉우리(총학생회장), 김경내(총부학생회장), 박아름(사회과학대학대표), 정은우(경영대학대표), 홍석영(동아리연합회회장), 나윤정(대학원학생회장), 서지희(외부전문가) (총 13인)		
불 참 자	없음		
안 건	2013학년도 등록금 심의(3차)		
내 용	□ 개회 성원이 되어 오종근 위원장이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개회하다. □ 회의내용 - 위원장은 2차 회의록 확인하기 전에 동아리연합회의 정정자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다. - 정정내용을 확인한 바, 학교가 자보를 검열하고 탄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는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만 공개한다는 합의를 지켜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 것일 뿐 검열을 하거나 탄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다. - 학교가 자보에 대해 검열하거나 탄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위원들이 확인하며 이를 회의록에 기록하기로 하다. - 1. 2차 회의록 확인 및 검토 - 위원장이 2차 회의록 확인을 요구하다. - 학생측에서 작성한 2차 회의록 초안에 대하여 내용이 서기록과 같이 자세히 작성되면서 오히려 맥락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요점과 결론 중심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위원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일부 내용과 문구를 수정 한 후 내일 오전까지 수정한 내용을 전달해주고 재정현황 및 기금의 조성경위에 대한 부분은 재무처에서 의견을 주어 내일까지 회의록을 최종 작성하여		

합의하기로 하다.

2. 논의사항

가. 진행과정에 대한 사항

- 학생측에서 1차, 2차 위원회의 진행과정에서 요구했던 자료를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부사항에 대해 얼마든지 열람을 약속하고도 1월 18일 (금)에 열람을 해주지 않았으며, 열람할 수 없는 이유를 공문으로 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항의하다.

- 학교측은 필요한 자료를 오늘 오후3시에 학생측에 제시했고, 자료를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늦게 전해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다.

- 열람에 대해서는 열람 범위와 수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공문은 회의비 내역을 주기가 어려울 경우 공문으로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회의비 내역을 주면 공문은 별도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다.

- 등심위 규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그 자료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회의비의 집행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예결산을 감사하는 기관에서는 가능하나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집행내역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하다.

- 예산 적절성을 보는 것과 지불 적정성을 보는 것은 차이가 있음. 회의비 총액이 얼마나 적정하게 예산 편성되었는지는 볼 수 있으나, 회의비 전액을 구체적으로 보는 것은 지불 적정성과 관련이 있으며 등록금 산정의 범위에서는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다.

- 학생측은 보여줄 수 없는 이유를 위와 같이 설명하지 않고 예결산을 자세히 볼 필요가 없다고 오해를 하게 한 부분을 지적하며, 2013년 가예산에 대한 논의를하기로 하다.

나. 2013학년도 가예산에 대한 논의

- 학교측은 가예산에 대하여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를 분리하고 세목별로 세분화하고 자산지출과 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하였음을 설명하다.

- 자산적지출은 총 1099억원으로 외부의 수입으로 72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1027억원을 기금 인출하여 진행하겠다고 설명하다.

- 학생측은 토지와 건설가계정 1099억이 등록금회계의 지출로 되어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다.

- 학교측은 자산의 지출은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더라도 등록금회계로 전입하여 지출해야 하는 것이며, 본교

는 등록금으로 건물 짓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다.

- 학생측은 국가장학금 2유형에서 학교의 자구노력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묻고, 학교측은 장학금 확충으로 반영되었다고 설명하다.

- 학생측은 지출내역을 보면 등록금에서 장학금이 반영되어 있는 데 등록금회계에서 사용해야 하는 장학금과 연구비를 기금을 인출해서 지출하여 등록금을 인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다.

- 학교측은 기금은 기금의 용도가 왔는 것이며 장학기금의 이자는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을 설명하다.

- 기금은 학교의 효익이 되며 세대간의 공평배분이 되는 곳에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며 학생들이 경상적으로 기금을 사용하자는 것은 뒤의 세대의 것을 미리 사용하는 의미라고 설명하다.

- 학생측은 등록금 인하를 하라는 의미로 국가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장학금을 등록금에서 확충하면 학생의 등록금으로 장학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장학금은 가변적인 것인데 가변적인 것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실질등록금이 아니라 명목등록금 자체를 인하해야 함을 주장하다.

- 학교측은 선택적 복지나 전원 복지냐의 차이인데 등록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진짜 가난한 사람은 그만큼 혜택을 받을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하다.

- 학생측은 적립금이 제일 많은 것에 대한 사실을 지적하다.

- 학교측은 적립금이 많은 학교가 부자학교라는 것은 아니며, 실물자산은 수익이 보이지 않고 현금자산은 이자라는 수익이 있어 회계상에 나타나는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하다.

- 학생측은 최근 학교가 투자한 내용을 보면 꼭 학부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기금을 등록금 인하에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학부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해 주기를 요청하다.

- 학교측은 본교가 학부중심의 투자가 아니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으며, ECC와 종과 D동은 학부생들을 위한 공간임을 설명하다.

- 학생측은 ECC에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보다 지하 4층에 상업시설이 더 많고, 종과D동은 학부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대부분이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되고 있음을 말하다.

- 학교측은 ECC 임대수입도 등록금회계의 수입으로 반영되어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설명하다.

- 학생측은 예체능계열의 등록금이 높은 데 별도의 실습비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과 실험을 하지 않는 학과와의 차등 책정에 대한 설명, 실습비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다.

- 학교측은 학생을 위한 실습비를 검토하기로 하고, 학교도 전공별 책

정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유레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전공별 등록금 원가를 산정하는 교육원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하다.

- 학생측은 대학원 공간의 열악함을 설명하면서 학생수는 점점 증가하는 것에 비하여 연구하고 논문을 써야하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장학금도 예전에는 등록금과 비례해서 지급되었는데 요즘에는 정액으로 책정된 상태에서 인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말하다.

- 학교측은 학교에서도 수업 공간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내주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다.

- 학교측은 가예산을 보면 경상수입이 3,150억 경상지출이 3,208억으로 약 58억이 부족한 상황이고 감가상각 116억을 감안하면 174억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 적자분을 줄이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다.

- 학교측은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등록금 인상안을 학부학생 등록금 동결, 대학원은 물가인상율을 고려하여 3% 인상안을 제시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학원 등록률을 높이고 감가상각비를 100%에서 50%로 감축하며 사업을 조정하여 적자구조를 해결하겠다고 제안하다.

- 학생측은 등록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연구기금, 장학기금을 통하여 부담하고 건축기금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줄여 등록금은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다.

- 학생측은 대학원의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학비는 올라가는 데 등록률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다.

- 학교측은 학교는 사립대이지만 공공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학부는 교육기능이 가장 크고 대학원은 학문적 목적이 크며 전문, 특수대학원은 필요에 의해 들어오기 때문에 목적성이 조금 다르다는 설명을 하다.

- 학교측의 등록금 인상안은 제시되었으나, 대학원의 등록금인상안에 대한 논의는 4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진행하기로 하다.

□ 폐회

-4차 회의는 1월 22일(화) 오후 8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10시 1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 함

2013년 1월 22일

확 인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오종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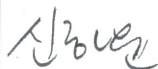
위 원

봉우리



위 원

신하윤



위 원

김경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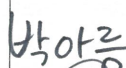
위 원

조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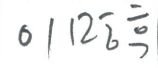
위 원

박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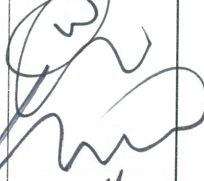
위 원

이명휘



위 원

정은우



위 원

서미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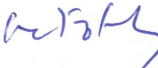
위 원

홍석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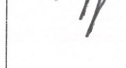
위 원

신경식



위 원

나윤정



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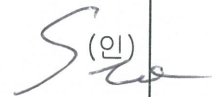
서지희



작 성 자

소 속 : 재 무 처

성 명 : 서 미 옥

 (인)